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공손 표현*

서재석 **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연구
4. 연구 결과 및 논의
5. 결론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되었음.

**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jssuh@inha.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요구행위에서 공손 표현을 위한 완화제(downgrader)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학습자들의 영어공손표현능력을 기술하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7종 교과서의 요구화행에 제시된 완화제는 영어요구화행을 탐구한 기존 연구들에 나타난 완화제의 빈도, 유형, 그리고 활용패턴을 중심으로 비교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과서별로 등장한 완화제는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단지 7가지 유형들(Interrogative, Tense, Conditional clause, Consultative device, Politeness marker, Understater, Agent avoider)만 제시되어, 단조롭고 한정된 분포를 보였으며, 요구책략 당 평균적으로 한 개 미만의 완화제가 사용되어 제한적인 활용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공손을 적절히 표현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에 등장한 완화제는 빈도, 유형 그리고 활용패턴에서 EFL한국학습자들이 영어요구행위 시 사용한 완화제와 유사하지만 영어모국어화자들의 완화제 활용과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요구행위시 보여준 완화제 활용방식은 7종 교과서의 완화제 취급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위주의 영어 완화제 교육이 L2상호작용에서 필요한 영어 공손 표현 능력 발전에 크게 유용하지 못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 성공적인 L2공손능력배양을 위해,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L2완화제 입력과 충분한 연습 기회 제공에서 영어 교과서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었다.

주제어 : L2공손능력, 화행, 영어요구화행, 완화제, 공손, 영어 교과서

1. 서론

공손(politeness)은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에서 관찰되는 보편적 가치이다(Spradley, 2006). 특정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은 공손을 통해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므로 공손은 사회적 윤활유(lubricant) 역할을 담당한다(Brown & Levinson, 1987).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공손은 구두적(verbal), 비구두적(nonverbal) 의사소통의 적절성을 규정하는데, 아동은 출생 후 모국어 습득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발전시키는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용인하는 방식으로 공손을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터득한다(Andersen, 1990; Blum-Kulka, 1987; Bryant, 2001; Ervin-Tripp, 1974). 그러므로, 상호작용 중, 필요할 때면 언제든, 공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는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필수적인 지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손 개념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공손이 동일하게 인식되고 표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사람들간 다문화커뮤니케이션(cross-cultural communication)의 경우, 공손 표현의 차이와 다양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특정 문화에서 공손하게 인식되는 언행이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언어에 녹아있는 공손의 사회-문화적 규범, 규칙들이 다문화커뮤니케이션에서 만나서 충돌할 경우, 대화 참여자들은 오해나 소통 단절의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데, 이는 L2를 통해 목표어화자들 혹은 다양한 L1배경을 지닌 화자들과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제 2언어 학습자들에게 흔한 경험이 되어왔다. 다수 L2화용론 연구에 따르면, L2사회-문화적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L2공손 표현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끼며(Altasan, 2016; Al-Zumor, 2011; Chung & Min, 2013; Hartford & Bardovi-Harlig, 1996; Shim, 2013; Suh, 2017, 2018; Yin, 2020), 목표어화자들은 학습자들의 불충분한, 부적절한 공손 표현에 대해 비문법적 표현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 가혹한 태도를 보였는데(Bardovi-Harlig & Dornyei, 1998), 이는 일상적 언어사

용에서 문법성(grammarality)보다 부적절성(inappropriateness)이 상대방의 감정적, 정의적 영역에 더 깊숙이 파고들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L2사회-문화적 지식으로 인해 공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의도하지 않게 대화 상대방에게 비우호적, 혹은 불손하게 보여, 자신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남기고, 심지어 미래 상호작용에서 회피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은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Bardovi-Halig, 2012; Thomas, 1983).

L1 혹은 L2를 통한 상호작용에서 공손 개념이 가장 빈번히 적용, 활용되는 상황 중 하나는 아마도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 혹은 부탁을 위해 지시(directives)나 요청(requests)을 실행하는 경우일 것이다(Ellis, 1994; Fraser, 1990; Koike, 1989). Gibbs(1981)에 따르면, 요청행위는 화자에게 득이 되지만, 청자에게는 실이 되어, 화자가 특정 상황에서 청자로부터 도움, 정보, 혹은 협조를 얻어낼 목적으로 요구화행을 수행할 때, 청자의 신체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화자로서 상대방 체면(face)을 보호하고, 초래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공손이다(Brown & Levinson, 1987). 영어를 L2로 학습하는 한국학습자들은 다양한 L1배경을 지닌 대다수 학습자들처럼 영어공손표현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는 두 문화간 사회-문화적 규범, 규칙의 차이들과 공손 표현을 위한 언어적 장치들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국문화는 전통적으로 유교에 기반한 전체적, 수직적, 형식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관계를 정립하여, 주로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을 낮추고, 다양한 존댓말(honorifics)을 통해 상대방에게 복종, 존경을 보이는 방식으로 공손을 나타내지만, 미국문화는 개인주의적, 수평적, 실용적 가치를 지향하고 개인의 사적 자유와 권리가 우선적으로 강조되므로, 침해받을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공손이 나타난다. 이러한 두 문화간 공손의 사회-문화적 규범상 분명한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서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많은 상대방에게 공손을 과도하게 활용하거나 혹은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서 동등하고 친근한 상대방에게 거의 공손을 표현하지 않는

L1규범에 익숙한 EFL한국학습자들은 L2를 통한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L1사회-문화적 규범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적용하여, 공손을 과하거나 부족하게 사용하여, 결국, 적절한 L2공손 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되리란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Byon, 2004; Sohn, 1986; Suh, 1999).

EFL한국학습자들의 입장에서 L2를 통한 공손 표현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를 L1과 L2간 공손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문장 어미에서 존댓말 활용에 주로 의존하는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서는 문장의 다양한 위치에서 완화제(downgrader)를 통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의 공손이 표현될 수 있다. 완화(downgrading)는 특정 화행이 갖는 의사소통력(communicative force) 혹은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줄이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요구화행의 발화수반력이 초래한 부담(imposition)을 완화를 통해 약화시켜, 행위를 우회적,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동시에 상대방 체면을 보호하여, 결국, 요구행위 전체를 공손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완화의 기능은 완화제를 통해 구현되는데, House와 Kasper(1981, p. 166)에서 보듯(즉, “downgraders are markers which play down the impact X’s utterance is likely to have on Y”), 영어모국어화자들은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다양한 양의 공손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유형의 완화제를 다양하게 조합, 혼합하여 적극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하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Blum-Kulka, House & Kasper, 1989).

한편, EFL한국학습자들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모국어 화자들과 상호작용기회가 거의 없어, L2학습 성공에 필요한 입력의 양과 질 측면 모두에서 ESL학습자들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EFL학습자들은 L2입력노출을 위해 오랫동안 교실 상황에서 한국인영어교사들과 교과서에 주로 의존해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Kim, 2013). 아울러, 7차영어과 교육과정이후로 교사와 학생 모두 의사소통능력증진에 대한 강한 요구와 부담을 받아오고 있지만, 적지 않은 고등학교 영어교실에서는 여전히 대학입시를 위한 읽기와 문법에 치중한 수업이 만연함을 고려할 때, EFL한국학습자들의 L2의사소통능력배양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영어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Kim, 1999; Kim & Lee, 2013). 또한, 공손이 L2 의사소통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완화제가 영어공손표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완화제가 영어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취급되는 방식이 학습자들의 L2공손표현능력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학습자들의 L2공손표현능력 과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완화제에 대한 탐구는 흥미롭고, 의미있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질의와 탐색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으며,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완화제 분석을 통해, EFL한국학습자들의 L2공손표현능력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대화에 나타난 공손 표현을 위한 완화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모국어화자들과 한국학습자들의 완화제 활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교과서의 완화제 제시가 한국학습자들의 영어공손표현 발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요구행위에서 공손 표현을 위해 완화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2.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요구행위에서 나타난 완화제는 영어모국어화자들과 EFL한국학습자들이 사용한 완화제와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L2공손을 위한 완화제

House와 Kasper(1981)가 지적하듯, 영어모국어화자는 상호작용에서 화행의 발화수반력을 완화제를 통해 의도적으로 낮추어 행위를 간접적, 우회적으로 실현하면서 공손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언어 사건(speech event)을 구성하는 중심에는 주로 요구화행(requests)이 있음을 알 수 있다(Yule, 1996). 이미 언급했듯이, 요구행위란 화자에게 득이 되지만, 청자에게 손해를 가져오므로, 화자는 청자의 손실을 줄이

고, 체면을 보호하며, 나아가 자신의 행위 응낙 가능성 향상을 위해 공손하게 보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완화제이다. 요구행위에서 공손 표현을 위한 완화제는 요구 책략(request strategy)내에 선택적으로 활용되는데, 다음의 예에서 보듯, 동일 상황(화자가 청자에게 노트를 빌리려는 상황)에서 발화된 두 요구 책략의 비교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Let me borrow your notebook.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possibly give me your notebook for a second.

우선, 두 요구 책략간의 차이를 전자에서는 명령형(imperative) 형태를 통한 직접화행의 수행과 후자에서 평서문(declarative)을 활용한 간접화행의 실현에서 찾을 수 있지만,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완화제의 사용 유 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첫째 요구 책략에는 완화제가 전혀 없지만, 둘째 책략에는 다양한 유형의 완화제들이 등장하여 상당한 양의 공손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활용된 완화제 유형들로는 통사적 완화제(즉, Tense, Aspect, Conditional clause), 어휘적 완화제(즉, possibly), 그리고 구(phrasal) 완화제(즉, for a second)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여러 유형의 완화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해당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초래된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행위를 간접적, 우회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좀 더 공손하게 보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둘째 요구 책략을 선택한 화자는 의도된 의사소통력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발화하는 대신, 다양한 유형의 완화제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덜 분명하고, 더욱 간접적이고, 불투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자의 체면을 보호하고,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공손하게 보이려 했음을 알 수 있는데, Yule(1996, p.65)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he choice of a type of expression that is less direct, potentially less clear, generally longer, and with a more complex

structure means that the speaker is making a greater effort, in terms of concern for face (i.e., politeness), than is needed simply to get the basic message across efficiently.”

영어모국어화자들이 요구행위에서 공손 표현을 위해 빈번히 활용하는 완화제 유형들의 종합적, 체계적 분류를 위해 대다수 연구들은 Blum-Kulka와 Olshtain 그리고 Kasper(1989)가 고안한 완화제 분석용 코딩 스킴(coding scheme)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교과서에 등장한 완화제 분석에서는 Blum-Kulka의(1989)를 바탕으로, Shim(2013), Suh(2006), 그리고 Yang(2005)의 영어요구화행 분석에서 활용된 완화제 분류표도 참조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완화제 유형들을 확인하고, 기술하려 노력하였다.

2.2 학습자들의 L2완화제 활용과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L2완화제

한국학습자들의 L2요구화행에서 공손 표현을 위한 완화제 활용을 탐구한 연구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연구들은 모두 학습자들의 영어 완화제에 대한 화용적 지식이 부족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예로서, Han(1999)은 EFL대학생들의 요구화행을 대상으로 화용적 교수(pragmatic instruction)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교수 전의 피험자들은 직접적 요구 책략을 선호하였고, 동시에 완화제 사용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의 영어요구행위가 영어모국어화자들의 행위에 비해 공손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Yang(2001)도 EFL대학생들의 이메일에 나타난 영어요구화행의 분석을 통해 피험자들은 요구행위에서 공손 표현을 위해 대부분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완화제, ‘please’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손 표현을 위한 화용적 지식의 부족을 나타내었다. 또한, Suh(2006)는 ESL대학생들과 EFL대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요구화행시 사용된 완화제를 분석하였는데, 두 그룹의 피험자들은 모두 제한된 유형의 완화제에 의존하였고, 완화제 사용 빈도에서 영어모국어화자들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 대부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공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Shim(2013)은 Yang(2001)처럼

EFL대학생들의 이메일에 나타난 영어요구화행을 분석한 결과, 60%의 요구 책략들은 완화제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용된 완화제 유형 중에 ‘please’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피험자들의 L2공손 능력의 부족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마찬가지로, Yin(2020)은 화용적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 실행 전, EFL 대학생들이 발화한 영어요구화행을 분석하였는데, 피험자들은 제한된 유형의 완화제(즉, ‘please’ 포함)를 낮은 빈도로 활용하였고, 대체로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손하게 보이지 않아서, 결국, L2공손 능력의 결여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EFL교과서와 학습자의 영어능력발달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영어 교과서에서 공손 표현을 위해 제시된 완화제가 영어모국어화자들의 완화제 활용 패턴을 정확하고 진정성있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영어공손표현능력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쉽게 가정해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쉽게도 현재까지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Yang(2004, 2005)은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완화제 분석을 통해 교과서가 영어모국어화자들의 완화제사용패턴을 충실히 반영하여 학습자들의 요구행위실현에서 필요한 공손 표현 능력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즉, Yang(2004)은 중학교 1, 2, 3학년에서 활용되는 27종의 영어 교과서의 대화에 나타난 완화제를 분석하였고, 상당히 제한된 유형의 완화제 중심으로 요구행위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교과서의 요구화행실현에서 대체로 3가지 유형의 완화제들(즉, Interrogative, Conditional, 그리고 Politeness marker)만이 가장 자주 사용되었고, Tense와 Aspect같은 영어모국어화자들이 애용하는 완화제 유형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 학습자들의 L2공손 표현 발달에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Yang(2005)도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21종의 영어 교과서의 말하기&듣기섹션에 나타난 영어요구화행속 완화제를 분석하였는데, 위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분석 결과처럼, 대체로 제한된 특정한 유형의 완화제들(즉, Interrogative, Conditional, 그리고 Politeness marker)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였고, 영어모국어화

자들의 다양한 완화제 유형을 여러 조합 방식을 통해 공손을 표현하는 활용패턴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런 불충분하고, 진정성이 부족한 L2 완화제 입력의 제공은 학습자들의 영어요구화행실현에서 필요한 적절한 공손 능력 배양에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리란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끝으로, Seong(2009)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요구행위속 완화제를 분석하였는데, Yang(2004, 2005)에서 보듯, 소수 특정 완화제 유형들(즉, Interrogative, Politeness marker)의 과도한 제시로 인해 영어모국어화자들의 완화제 활용 방식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함을 보고하였고, 이는 고등학생들의 L2요구행위에서 제한된, 특정 유형 완화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하게 되어, 영어공손능력 신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3. 연구

3.1 피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들이다. 분석 대상이 된 영어 교과서들은 2017년 9월에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6개 출판사의 총 7종의 최신 교과서들인데, 이들 모두는 복수의 집필진들이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표1>에서 보듯, 각 교과서의 말하기와 듣기, 혹은 의사소통섹션에 나타난 대화만이 오롯이 분석 영역에 해당되었다(교과서는 A ~ G로 표기됨).

〈표1〉 7종 영어 교과서의 구성과 분석 영역

교과서	집필권 수	단원 수	분석 영역
A	4	8 Lessons	Listen & Speak
B	8	10 Lessons	Ready to Communicate, Communication Task
C	8	8 Lessons	Listen & Speak, In Real Life
D	7	8 Units	Listening & Speaking
E	6	7 Lessons	Communication: Start-Up, Communication: Build-Up
F	12	8 Lessons	Listen & Speak, Use it
G	10	10 Units	Listen & Speak, Into Real Life

3.2 영어 교과서 분석 절차

7종 영어 교과서의 분석은 첫째 연구 질문(즉,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요구행위에서 공손 표현을 위해 완화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요구행위에서 공손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 완화제를 기술하고, 교과서의 완화제 제시와 EFL한국학습자들의 공손 표현 능력간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교과서분석을 위한 첫째 단계에서는 각 교과서의 대화에 나타난 모든 영어요구행위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일단 요구행위가 확인되면 요구화행이 실현된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간 주요 상황적 변인들(즉, 사회적 지위, 친근감 그리고 나이)에 따라 해당 요구화행이 기술되었다. 둘째 단계에서는 특정 요구행위실현을 위해 발화된 요구책략속에 나타난 완화제를 확인하고 분류하였는데, 이를 위해, Blum-Kulka와 Olshtain 그리고 Kasper(1989)가 제안한 완화제 분석을 위한 coding scheme뿐 아니라 Shim(2013), Suh(2006) 그리고 Yang(2005)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발전시킨 <표2>의 완화제 분류표가 활용되었다.

〈표2〉 영어 교과서의 요구화행에 나타난 완화제 분석을 위한
분류표

완화제 유형	예
1. Interrogative	<i>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nearest bus station?</i>
2. Conditional	<i>I would suggest you finish homework now</i>
3. Aspect	<i>I'm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a ride tonight</i>
4. Tense	<i>Would you please lend me some money?</i>
5. Conditional clause	I was wondering <i>if you could let me use your computer</i>
6. consultative device	<i>Would you mind lending me a pen?</i>
7. Subjunctive	<i>Might be better if you were to come to my office early</i>
8. Agent avoider	<i>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just lend me your notebook for a while?</i>
9. Understater	Could you tell me <i>a little</i> about your home country?
10. Downtoner	Could you <i>possibly perhaps</i> help me with homework?
11. Subjectivizer	<i>I suppose</i> you could drop by a gas station soon
12. Cajoler	<i>You know</i> , I'd really like you to study together with me for the upcoming exam
13. Hedge	It would be much better <i>somehow</i> to finish your work early
14. Politeness marker	<i>Please</i> turn on the TV
15. Appealer	Lock the door, <i>will you? okay?</i>

완화제는 이탤릭체로 표시됨

〈표2〉에서 보듯, 완화제 분류표는 총 15개 유형을 포함하는데, 처음 8개 유형은 통사적 완화제 범주에 들어가며, 나머지 유형들은 어휘적, 혹은 구 완화제 범주에 포함된다. 7종 영어 교과서속 요구화행실현에서 공손 표현을 위해 제시된 모든 완화제들이 〈표2〉에 따라 유형, 빈도, 그리고 활용패턴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둘째 연구 질문(즉,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요구행위에서 사

용된 완화제는 영어모국어화자들과 EFL한국학습자들이 활용한 완화제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을 얻고자 영어모국어화자들과 EFL한국학습자들의 영어요구화행수행에서 공손 표현을 위한 완화제 활용에 관한 탐구가 이루어진 Han(1999), Hartford와 Bardovi-Harlig(1996), Shim(2013), Suh(2006), 그리고 Yin(2020)을 참고로 활용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모국어화자들과 한국학습자들간 영어요구행위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으려 자료수집도구로 주로 담화완성과업(discourse completion task)을 사용하였는데, 수집된 영어요구행위들은 화자와 청자간 상황적 변인들(주로 사회적 지위와 친근감)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창출된 인위적 상황에서 실현되었다. 비록 7종 영어 교과서에 등장한 대부분의 요구행위들이 화자와 청자간 사회적 지위가 학생 신분으로 동일한 동료 학생 사이, 혹은 친구 관계의 상황들에서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둘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위에서 언급된 기존 연구들의 DCT에 포함된 다양한 상황에서 실현된 요구행위 전부를 대상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한국학습자들이 동료, 혹은 친구에게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도움 혹은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요청행위를 자주 수행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다르지만 친근감이 있는 상대에게 요청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들(예를 들어 화자인 학생이 교사 혹은 교수에게 요청행위를 하는 경우들)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꽤 높으므로, 이런 상황들에서 영어요청행위시 완화제를 통한 공손 표현을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L2화용적 능력이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교과서속 요구행위에 나타난 완화제와 위의 언급된 연구들의 DCT의 다양한 상황들에서 수집된 요구행위속 완화제간 비교를 위해 요구 책략당 평균 완화제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Interrogative 완화제 유형은 산출에서 배제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대체로 화자들이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에게 요구나 부탁을 할 때, 평서문보다는 의문문을 토대로 요청 책략을 만들고, 책략 주변에 행위에 대한 이유 혹은 설명을 덧붙여 전체 요구행위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고려할 때, 요구행위수행을 위해 의문문에 바탕을 둔 요구 책략 발화는 꽤 당연하고,

보편적인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어, 이런 의문문 형태의 발화를 다시 완화제 유형으로 중복해서 인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Hartford & Bardovi-Harlig, 1996; Suh, 2006). 더구나 한국학습자들의 영어 공손 표현 능력 배양을 위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표2>의 완화제 유형 분류표에서 보듯, 의문문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다양한 완화제 유형들에 대한 학습과 이들의 활용에 필요한 연습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4. 결과 및 논의

4.1 영어 교과서속 요구화행에 나타난 완화제

7종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요구행위에서 공손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 완화제의 수는 총 141개이며, <표3>에서 보듯, 이들은 7가지 유형들(Interrogative, Tense, Conditional clause, Consultative device, Politeness marker, Understater, Agent avoider)로 분포되었다.

<표3>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요구행위속 완화제 유형들(개수)

완화제 유형	A	B	C	D	E	F	G
Interrogative	15	14	19	12	2	6	23
Tense	4	1	11	1	1	1	3
Conditional clause	0	0	3	0	0	0	0
Consultative device	1	0	0	0	0	0	0
Politeness marker	1	3	3	2	0	2	1
Understater	5	0	0	0	0	1	0
Agent avoider	2	0	0	4	0	0	0
Total	28	18	36	19	3	10	27

A ~ G; 교과서

<표3>에 의하면, 교과서별로 완화제 사용 빈도수는 제각각인데, C교과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완화제를 활용했지만(36개), E교과서는 매우 적은 완화제를 보여주었다(3개). 또한, <표2>에서 보듯, 완화제 분석을 위해 총 15가지 유형의 완화제를 포함한 분류표가 사용되었지만, 7종 교과서에는 단지 7가지 유형만 제시되어 상당히 제한되고 한정된 완화제 활용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7가지 완화제 유형들 가운데, Interrogative 유형이 가장 자주 등장하였고(91회), Consultative device 유형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1회). 다음에서 교과서에 나타난 각 완화제 유형의 활용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완화제는 이탤릭체로 표시됨).

Interrogative 유형: *Can you describe the food?* (A 교과서, p. 83)

Tense 유형: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it?* (C 교과서, p. 159)

Conditional clause 유형: I wonder *if* you could do the same for my jacket (C 교과서, p. 36)

Consultative device 유형: *Would you mind* turning off the air conditioner? (A 교과서, p. 102)

Politeness marker 유형: *Please* go to the clothing booth (D 교과서, p. 186)

Understater 유형: Can you give me *a little* more time? (F 교과서, p. 186)

Agent avoider 유형: *I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carry my bag (A 교과서, p. 60)

7종 교과서에서 Interrogative 완화제 유형이 가장 자주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아마도 일반적으로 많은 화자가 상호작용에서 요구행위시 평서문보다는 의문문을 바탕으로 요청 책략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요구행위를 실현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

음으로 빈번하게 활용된 완화제 유형들의 순서를 보면, Tense(22회), Politeness marker(12회), 그리고 Understater와 Agent avoider(6회)인데, 우선, Tense 유형은 과거 시제가 현재 시제보다 요구행위에서 더 많은 공손함을 표현한다는 화용적 정보가 한국 EFL교실에서 빈번히 언급, 강조되는 점을 고려할 때, Tense 유형의 잦은 등장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한편, Politeness marker 유형은 예상과 달리 그리 빈번히 나타나진 못했는데, 많은 연구들(Han, 1999; Scarcella, 1980; Shim, 2013; Suh, 1999, 2006; Yin, 2020)에 의하면, 한국학습자들이 영어요구행위에서 공손 표현을 위해 Politeness marker 유형에 대해 강한 의존성을 나타냈으므로, 7종 교과서의 요구행위에서 please가 덜 등장한 결과는 예상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영어요구행위에서 완화제로서 please를 통한 공손 표현 교육이 중학교 교실에서 이미 일찍이 완료되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시 다룰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carcella(1980)는 모국어 배경에 상관없이 제 2언어학습자들이 공손 표현을 위해 대체로 학습 초기에 please를 쉽게 습득하고, 이후 please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제까지 교과서에서 제시된 완화제의 유형과 빈도를 볼 때, 학습자들은 요구행위시 공손 표현을 위해 주로 의문문에 바탕을 둔 요구 책략을 발화하거나, 책략속에 현재가 아닌 과거시제를 적용하거나, 혹은 명령형(imperative)의 책략에 please를 삽입하는 교육에 익숙해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교과서가 다양한 완화제 유형을 통한 공손 표현에 관한 L2화용적 정보와 자료제공에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학습자들의 효율적, 성공적 L2완화제 지식 배양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Understater 유형은 어휘적 완화제로서 a little bit, a second, not very much, just a trifle 같은 다양한 표현을 포함하지만, 7종 교과서에는 오직 a little만 제시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대다수 한국학습자들은 개별 표현의 의미를 알고, 문법적으로 문장에서 이해하고, 발화할 수 있지만, 상호작용에서 요구화행실현시 공손 표현을 위한 완화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화용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Yin(2020, p.143)의 연구에 참여한 EFL한국대학생의 언급을 참고할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n regards to consultative devices, the students were familiar with the construction, but only knew their meaning rather than their politeness function. I saw “would it be possible to” in reading passages, but I’ve never used it. When I think about my reading in high school, I analyzed the grammar during reading and never thought about politeness. (Student J, MD)”

이렇듯 교과서에 바탕을 둔 한국 EFL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주된 관심과 초점은 문법과 독해에 과도하게 주어져 있으며, 문맥속 언어사용, 의사소통이 홀대받아왔는데, 중요한 점은 언어적 지식이 충분하여 문법적으로 구와 문장을 정확하게 창출할 수 있어도, 이런 능력이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전달을 위해 적절한 언어사용을 통한 성공적 상호작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데 있다(Bardovi-Harlig, 2012). 그러므로, 교과서는 문법적 입력뿐 아니라 화용적 입력의 제시에도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는 동일한 언어 형태라도 문맥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동일 메시지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언어 형태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화용적 정보와 연습(practice)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4.2 공손 표현을 위한 영어 교과서속 완화제와 EFL학습자들의 완화제 비교

앞의 <표3>에 나타난 7종 영어 교과서속 요구행위시 공손 표현을 위해 사용된 완화제 유형들의 분석을 토대로, 두 번째 연구 질문(즉,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요구행위에서 나타난 완화제는 영어모국어화자들과 EFL한국학습자들이 활용한 완화제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모국어화자들과 EFL한국학습자들의 영어요구화행수행에 탐구한 연구들(즉, Hartford & Bardovi-Harlig, 1996; Shim, 2013; Suh, 2006; Yin, 2020)에서 나타난 완화제와 7종

교과서에 등장한 완화제를 비교하였으며, <표4>에 제시되었다.

<표4> 요구 책략당 평균 완화제 사용 빈도 비교(개수)

	요구 책략당 평균 완화제 수	피험자 유형
현재 연구 (7종 교과서)	0.42	해당사항없음
Hartford & Bardovi-Harlig(1996)	영어모국어화자들: 1.58	대학원생들
Shim(2013)	영어모국어화자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EFL한국학습자들: 0.59	대학생들
Suh(2006)	영어모국어화자들: 1.54	대학생들
	EFL한국학습자들: 0.5	대학생들
Yin(2020)	영어모국어화자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EFL한국학습자들: 0.49	대학생들

<표4>를 통해 7종 교과서의 요구행위수행에서 요구 책략당 제시된 완화제 수와 Hartford와 Bardovi-Harlig(1996), Shim(2013), Suh(2006), 그리고 Yin(2020)에서 영어모국어화자들과 EFL한국학습자들이 요구행위시 공손 표현을 위해 요구 책략당 활용한 완화제 수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7종 교과서에 나타난 완화제 활용 빈도는 EFL한국학습자들이 사용한 완화제 수와 비슷하지만(즉, 0.42 in textbooks vs 0.59 in Shim(2013), 0.5 in Suh(2006), 그리고 0.49 in Yin(2020)), 영어모국어화자들이 사용한 완화제 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즉, 0.42 in textbooks vs 1.58 in Hartford & Bardovi-Harlig(1996), 그리고 1.54 in Suh(2006)). 즉, 영어모국어화자들의 요구 책략당 완화제 빈도수는 7종 교과서에 나타난 완화제 수 혹은, EFL한국학습자들의 완화제 활용 빈도수보다 거의 3배가량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영어모국어화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행위시 적극적이고 능숙한 완화제 활용을 통해 원하는 공손의 양을 적절하게 표현하지만, 교과서와 EFL한국학습자들은 완화

제 활용에 소극적이거나, 소홀하여 대체로 공손 표현이 불충분하여, 상대방에게 불손하거나 무례하게 보일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에서 교과서에 등장한 완화제, EFL한국학습자들이 활용한 완화제, 그리고 영어모국어화자들이 활용한 완화제가 빈도와 사용패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완화제는 이탤릭체로 표시됨).

교과서

Call me when you're ready (C 교과서, p. 112)

Will you tell me the reason you chose this song? (D 교과서, p. 87)

Could you demonstrate it with an example? (E 교과서, p. 34)

EFL한국학습자들

Please lend me your notes (Han, 1999, p. 138)

I'd like to borrow your notes (Han, 1999, p. 139)

Could I borrow your note? (Suh, 2006, p. 166)

영어모국어화자들

I guess what *I'm asking is if* you could write another letter of recommendation for me this week (Hartford & Bardovi-Harlig, 1996, p. 64)

Is there any way I could borrow your notes? (Suh, 2006, p. 166)

I was *just wondering if* you *could* mind *if I could* copy your notes from last week (Suh, 2006, p. 166)

위의 예에서 보듯, 교과서 혹은 EFL한국학습자들의 요구 책략에는 완화제가 전혀 없거나 Tense 혹은 Politeness marker(please) 완화제 유형 중 한 개가 등장한 것이 전부이므로, 완화제 활용이 매우 제한되고 단조롭게 보이지만, 영어모국어화자들은 학습자들과 동일한 상황(즉, 결석으로 인한 수업 손실을 보충하고자 동료 학생에게 노트를 빌리려 부탁하는 경우)에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완화제 유형(즉, Aspect, Tense, Agent avoider, Conditional clause)을 다양한 조합

을 통해 화자로서 원하는 공손을 충분히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어모국어화자들은 요구행위로 인해 청자에게 초래된 부담과 체면 위협을 줄이고, 학습자들보다 좀 더 공손하게 인식되어 행위 응낙성(compliance)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영어모국어화자들이 학습자들에 비해 상대 학생으로부터 노트를 성공적으로 빌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L2요구행위시 공손 표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숙한 완화제 활용 능력의 유 무가 학습자가 원하는 도움, 정보 혹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획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비록 교과서에 나타난 완화제와 비교를 위해 <표4>에 언급된 연구들에 참여한 피험자들인 EFL한국학습자들이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들이지만 이들이 보여준 완화제 활용 빈도와 사용패턴은 7종 교과서에 제시된 완화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시절에 영어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된 공손 표현 지식이 대학 입학 이후에도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 결국 고등학교의 교과서 위주의 영어 완화제 교육이 불충분하고, 소홀하여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영어 공손 능력 발전에 뚜렷하게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와 EFL한국학습자들간 영어요구행위시 완화제 활용 빈도와 사용패턴에서 유사함을 완화제 유형, Politeness marker(please)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완화제는 이탤릭체로 표시됨).

교과서

Please use the cafeteria (A 교과서, p. 172)

Please wrap this up (B 교과서, p. 51)

Please let me know if you will be late (F 교과서, p. 186)

EFL한국학습자들

Please lend me your notes (Han, 1999, p. 138)

Please send me an email about my mid-term exam score (Shim, 2013, p. 187)

Give me an extension on the paper, *please* (Suh, 2006, p. 169)

Please tell me the due date (Yin, 2020, p. 142)

영어모국어화자들

Could I please borrow your notes from yesterday? (Han, 1999, p. 127)

I wanted to see *if I could maybe* turn my paper in *a little* later (Suh, 2006, p. 169)

I was *just wondering if* there was any way possible that I *could* turn in my paper *a couple of* days later (Suh, 2006, p. 169)

I was wondering if you would have any objections to letting me have the use of the books you put on reserve over the Thanksgiving weekend (Hartford & Bardovi-Harlig, 1996, p. 65)

앞서 언급했듯이, 7종 교과서속 대부분 요구행위가 화자와 청자간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학생 사이에서 실현되었는데, 교과서의 예에서 보듯, 요구 책략인 명령형(imperative)에 완화제, please를 삽입하여 요구행위를 실현하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영미문화에서 친구 혹은 동료 학생 관계일지라도, 요구행위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체면 위협(face threatening) 행위로 인식되므로(Brown & Levinson, 1987), 영어모국어화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위의 예에서 보듯, 여러 완화제 유형을 결합하여 충분한 공손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부담을 줄이고 청자의 체면을 보호하면서 요구화행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등장하고, EFL한국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명령형 + please’형태의 요구 책략은 상대방인 동료 학생 혹은 친구에게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어 화용적 오류(pragmatic error)를 범하는 부적절한 언어수행이 될 수 있다. ‘명령형 + please’형태의 요구 책략이 교과서에서 빈번히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한국사회에서 동료 학생 혹은 친구간 흔히 나타나는 요구행위 실현방식을 L2요구화행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과서에서 정확하고 진정성있는(authentic) 언어정보가 제공되

지 못해 학습자들은 L2상호작용에서 오해나 심지어 의사소통 단절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위의 예에서 보듯, EFL한국학습자들은 교수에게 보내는 이메일 상황에서도 ‘명령형 + please’형태를 통해 요구행위를 실현했는데, 이런 행위는 영어모국어화자들에게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학생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교수를 상대로 ‘명령형 + please’를 통한 요구행위에서 매우 단조롭고, 제한적인 완화제 활용의 결과, 부족한 공손 표현으로 인해 무례, 불손하게 되고 청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남길 수 있지만, 영어모국어화자들은 여러 유형의 완화제를 다양하게 결합하여 의도된 메시지를 간접적, 우회적으로 전달하며, 동시에 충분한 공손을 전달하고 있다. 더구나 명령형에 삽입된 완화제 please는 공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행위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상승시켜 요청을 강제하고,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사회적 지위가 다른 화자와 청자간에는 적절한 사용 방식이 아님을 Hartford와 Bardovi-Harlig(1996, p. 59)은 다음에서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있다.

“it(please) does not serve as a strong enough mitigator to soften the force of the Imperative. Students do not have the institutional status to issue Directives to faculty, and the use of this form puts them seriously out-of-status.”

5.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요구행위에서 공손 표현을 위해 제시된 완화제를 분석하고, 교과서에 나타난 완화제와 EFL한국학습자들이 활용한 완화제간 비교를 통해 교과서속 완화제가 한국학습자들의 L2공손표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7년에 검정을 통과한 총 7종 영어 교과서에서 요구화행실현을 위해 선택된 요구 책략에 나타난 완화제를 유형, 빈도 그리고 활용패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과서별로 완화제 제시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C교과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완화제를 활용했지만(36개), E교과서는 단지 3개의 완화제를 보여주었다. 또한, 7종 교과서에는 총 15가지 유형의 완화제 중, 7가지 유형만 사용되어, 상당히 단조롭고, 제한된 활용패턴을 보였으며, Interrogative 유형이 가장 자주 등장하였고(91회), 다음으로 Tense(22회), Politeness marker(12회), Understater와 Agent avoider(6회) 유형의 순서로 나타났고, Consultative device 유형이 가장 적게 제시되었다(1회). 이처럼 교과서에 제시된 완화제는 제한적이고 단조로운 특징을 보였는데(Seong, 2009; Yang, 2004, 2005), 이는 한국 EFL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주된 관심은 문법, 어휘, 독해학습에 있고, 문맥속 언어사용과 의사소통에는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Yin(2020)에 참여한 EFL한국대학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 나타난 요구 책략속 완화제는 영어모국어화자들과 EFL한국학습자들의 영어요구화행을 탐구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수집된 완화제와 비교를 통해 교과서의 완화제가 유형, 빈도 그리고 활용패턴에서 EFL한국학습자들과 유사하지만 영어모국어화자들과는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모국어화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행위시 적극적이고 능숙한 완화제 활용을 통해 원하는 공손의 양을 적절하게 전달하지만, 교과서와 EFL한국학습자들은 완화제 활용에 소극적이거나, 소홀하여 대체로 공손 표현이 불충분하여, 상대방에게 불손하거나 무례하게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Han, 1999; Suh, 2006; Yang, 2004, 2005). 즉, EFL한국학습자들이 요구행위시 보여준 완화제 활용방식은 7종 교과서에 나타난 완화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위주의 영어 완화제 교육이 L2상호작용에서 필요한 영어 공손 표현 능력 발전에 만족스럽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제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분석대상이 된 교과서 풀이 충분히 다양하거나 많지 않은데, 향후 대상을 고교 전체 학년으로 넓히고 회화용 교과서까지 포함한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확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문제로, 앞서 언급했듯이, 교과서에 나타난 완화제와 EFL한국학습자들이 영어

요구행위시 활용한 완화제간 비교에서 후자의 요구행위를 수행한 주체가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들인 점인데, 이런 불일치가 전반적 연구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등장한 완화제와 EFL한국대학생들이 공손 표현을 위해 사용한 완화제가 빈도, 유형, 그리고 활용패턴에서 서로 꽤 유사했음을 고려해 볼 때, 고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학습된 영어 완화제에 대한 지식이 대학 입학 이후에도 눈에 띄게 신장 혹은 발전되지 못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므로, EFL한국학습자들 입장에서 요구행위수행의 주체가 대학생이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교과서에서 요구행위시 공손 표현을 위한 완화제 제시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상황의 요구행위 실현에서 좀 더 많은 유형의 완화제를 좀 더 빈번하게 활용해야 하며, 반드시 영어모국어화들의 완화제 사용패턴을 근거로 이루어져 충분하고, 정확하고, 진정성있는 L2언어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Jiang, 2006; Vasquez & Sharpless, 2009). 동시에, 우리 고등학생들의 화용적 지식의 연습을 위해서 다양한 기회 제공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요구행위시 공손 표현에 필요한 화용적 능력 배양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oliteness Expressions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Suh, Jaesuk(Inha University)

This paper focused on analyzing downgraders used to express politeness in the speech act of requests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on describing and understanding Korean learners' abilities in the expression of politeness in English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n downgraders in textbooks. A study was conducted in which downgraders within requests in 7 textbooks were analyzed in terms of type, frequency and pattern for use, and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downgraders in textbooks and downgraders used by both English native speakers and EFL Korean learners in previous studies on reques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extbooks differed from one another in frequency of downgraders, were monotonous in distribution of downgraders by employing only 7 types (i.e., Interrogative, Tense, Conditional clause, Consultative device, Politeness marker, Understater, Agent avoider), and showed limitations and arbitrariness in patterns for use by using less than one downgrader per request. Also it was found that downgraders in textbooks were similar to those used by EFL Korean learners, but were different from downgraders by English native speakers in their requests in terms of frequency, type and pattern for use. This indicated that the way Korean learners used downgraders in requests was similar to the way downgraders were treated in

textbooks, which suggested that English textbook-centered learning of downgraders in high schools made littl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L2 abilities in the expression of politeness necessary for successful L2 interaction. It was proposed that for effective and successful development of L2 abilities in the expression of politeness, English textbook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accurate, authentic input on downgraders and, at the same time,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practice during L2 classes.

Key words : L2 politeness competence, speech acts, English requests act, downgraders, politeness, English textbooks

[참고문헌]

- Altasan, A. M., The pragmalinguistic competence in requests: A comparison between one native and two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 2016, 353-359면.
- Al-Zumor, A. G., Apologies in Arabic and English: An inter-language and cross-cultural study, *Languages and Translation*, 23(1), 2011, 19-28면.
- Andersen, E., *Speaking with style: The sociolinguistic skills of children*, Routledge, New York, 1990.
- Bardovi-Harlig, K., Pragmatics in SLA, in S. Gass & A. Mackey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utledge/Taylor Francis, London, 2012, 147-162면.
- Bardovi-Harlig, K., & Dörnyei, Z., Do language learners recognize pragmatic violations?: Pragmatic versus grammatical awareness in instructed L2 learning, *TESOL Quarterly*, 32, 1998, 233-258면.
- Blum-Kulka, S., Indirectness and politeness in requests: Same or different? *Journal of Pragmatics*, 11, 1987, 131-146면.
-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 Investigating cross-cultural pragmatic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Ablex, Norwood, NJ, 1989, 1-34면.
- Brown, P., & Levinson, S.,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87.
- Bryant, J. B., Language in social context: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e preschool years, in J. B. Gleason (e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Pearson Education, Needham Heights, MA, 2001, 213-253면.
- Byon, A. S., Learning linguistic politeness, *Applied Language Learning*, 2004, 37-62면.
- Chung, B. H., & Min, S. J., Pragmatic transfer in refusal strategie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2(2), 2013, 129-147면.
- Ellis, R.,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4.

- Ervin-Tripp, S.,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requests by children, *Papers and Reports on Child Language Development*, 8, 1974, 188-196면.
- Fraser, B., Perspectives on 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14, 1990, 219-236면.
- Gibbs, R. W., Your wish is my command: Convention and context in interpreting indirect request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0, 1981, 431-444면.
- Han, J. J., Teaching speech act rules of request, *English Teaching*, 54, 1999, 121-144면.
- Hartford, B., & Bardovi-Harlig, K.,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A study of written student requests to faculty, in L. Bouton (ed.), *Pragmatics and Language Learning, Monograph*, 7,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1996, 55-69면.
- House, J., & Kasper, G., Politeness markers in English and German, in F. Coulmas (ed.), *Conversational routines: Explorations in standardized communication situations and prepatterned speech*, Mouton, The Hague, 1981, 157-185면.
- Jiang, X., Suggestions: What should ESL students know? *System*, 34, 2006, 36-54면.
- Kim, K. S., A study on the teaching of speech ac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nglish curricula: On the orders of presentation of speech act strategies, *English Teaching*, 54, 1999, 257-279면.
- Kim, M. H., How appropriately do Korean college students make email requests in English? *Modern English Education*, 14, 2013, 1-21면.
- Kim, S. H., & Lee, J. W., Analysis of compliment speech act in the 1st-year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9, 2013, 185-204면.
- Koike, D. A., Pragmatic competence and adult L2 acquisition: Speech acts in interlanguag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3, 1989, 279-289면.
- Scarcella, R., On speaking politely in a second language, in C. Yorio, C. Perkins & J. Schachter (eds.), *On TESOL '79: The learner in focus*, TESOL, Washington, D.C., 1980, 275-287면.

- Seong, J. E., A comparison of politeness strategies in requests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ESL textbooks, *Secondary English Education*, 2, 2009, 77-94면.
- Shim, Y. S., Requests in student-to-professor in emails of Korean EFL students,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 2013, 171-194면.
- Sohn, H. M., Linguistic expedition, Hanshin Publishing Company, Seoul, 1986.
- Spradley, J., Conformity and conflict, Pearson, New York, 2006.
- Suh, J. S., Pragmatic perception of politeness in request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7, 1999, 195-213면.
- Suh, J. S., Politeness behavior in requests as a function of downgrading, *English Teaching*, 61, 2006, 155-184면.
- Suh, J. S., Compliment and compliment response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English chatting,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6(1), 2017, 83-106면.
- Suh, J. S., Korean learners' strategie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English compliment response behavior, *Modern English Education*, 19, 2018, 1-15면.
- Thomas, J., Cross-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 1983, 91-112면.
- Vasquez, C., & Sharpless, D., The role of pragmatics in the Master's TESOL curriculum: Findings from a nationwide survey, *TESOL Quarterly*, 43, 2009, 5-28면.
- Yang, E. M., Organizational patterns of the requestive email by Korean English speakers, *English Teaching*, 56, 2001, 3-30면.
- Yang, E. M., A study on routine formulas and downgraders of request act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English Teaching*, 59, 2004, 197-214면.
- Yang, E. M., A study on routine formulas and downgraders of request act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 2005, 111-134면.
- Yin, J., Process of Korean students' pragmatic development in English during explicit metapragmatic instruction: Focus on request emails,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9, 2020, 131-153면.

Yule, G., Politeness and interaction, in G. Yule (ed.),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NY, 1996, 59-69면.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 김성곤외 8인. (2017). High School English I. 능률.
- 김태영외 6인. (2017). High School English. 천재교육.
- 박준언외 7인. (2017). High School English. 와이비엠.
- 양현곤외 3인. (2017). High School English. 능률.
- 한상호외 5인. (2017). High School English I. 와이비엠.
- 홍민표외 7인. (2017). High School English. 비상교육.
- 최인철외 9인. (2017). High School English. 금성출판사.
- 최인철외 7인. (2017). High School English I. 금성출판사.